

스마트폰 시장 수익성 중심 재편... '폴더블' 핵심 승부처 부상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 영향
삼성·애플 프리미엄 제품 확대
중 추격 거세... "경쟁 심화될 것"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판매량보다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확대하며 수익성 방어에 나선 가운데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4월 업계에 따르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여파로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3.9% 감소한 10억 80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이같은 원가 부담 확대와 수요 둔화 국면에서도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검증된 브랜드 경쟁력과 프리미엄 경험, 안정적인 애프터서비스(AS)를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차현정 기자

제공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기록하며 애플과 선두권 경쟁을 이어갔다. 갤럭시 S 26 시리즈 출시 이후 고가 제품인 울트라 모델 판매 비중이 확대된 데다 저용량 모

델을 축소하면서 평균판매가격(ASP) 상승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은 올해 1분기 점유율 21%를 기록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올랐다. 아이폰 17 시리즈 출시 이후 기본형과 프로맥스 모델 판매가 고르게 증가한 데다 ASP 상승 효과가 더해지면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지에 쏠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폴더블폰이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2%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폴더블폰은 높은 가격대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제품군인 만큼 삼성전자와 애플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을 열고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폴드8'과 '갤럭시 Z 폴립8'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펼쳤을 때 4:3 화면비를 적용한 새로운 폼팩터의 '갤럭시 Z 폴드 와이드'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Z 폴드8은 배터리 용량이 5000mAh 수준으로 확대되고 45W급 고속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퀄컴의 최신 칩셋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탑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

고 있다.

애플 역시 연내 폴더블폰 시장 진출이 유력시되면서 삼성전자와의 정면 승부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오는 9월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아이폰 울트라(가칭)'를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 Z 폴드 7'과 같은 기존 폴더블 플래그십 모델보다 가로 폭이 넓고 세로 길이는 짧은 형태를 채택해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후면에는 얇은 카메라 모듈을 적용하고 내부에는 듀얼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폴더블폰 시장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지만 향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애플뿐 아니라 중국 제조사들까지 가세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AI 기반 글로벌 TV 시장 선도

프리미엄 제품군 중심 경쟁 우위
'AI 축구모드 프로' 등 혁신기능 탑재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TV 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군을 중심으로 경쟁 우위를 이어가는 동시에 AI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 확대를 통해 차세대 TV 시장 주도권 확보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4월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31.3% 점유율을 기록해 21년 연속 TV 시장 1위에 다가섰다.

전년 동기 대비 1.3%p 상승한 수치이며, 2위 업체와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글로벌 TV 시장 강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은 매출 기준 53.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견고한 1위를 유지했다. 또 1500달러 이상 시장에서도 50.1%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달성했다.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매출 기준 31.6%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독보적 1위를 달성했다. 또, 98형, 100형 제품 등의



삼성전자 마이크로 RGB TV.

/삼성전자

판매 호조로 80형 이상에서도 매출 기준 29.7%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OLED TV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28.8% 증가하며, 매출 기준 40.1% 점유율을 달성했다. 2022년 출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삼성 OLED는 출시 이후 50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특히 북미 OLED 시장에서는 매출 기준 46.1% 점유율로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1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 북미 시장에서 삼성 OLED TV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삼성전자는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었던 CES를 통해 올해를 '고객의 일상에 즐거움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AI TV의 대중화 시대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기존 마이크로 RGB·OLE D·네오 QLED 등 프리미엄 TV 라인업 전체에 더해 신규 미니 LED와 UHD를 포함한 보급형 라인업까지 올해 출시하는 TV 모델에 혁신 AI 기능을 탑재했다.

특히 올해 출시한 TV 신제품 라인업에는 AI가 실시간으로 축구 경기 장면을 분석해 또렷한 색감의 화질을 제공하고 공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정밀하게 표현하는 'AI 축구모드 프로'를 탑재해 한층 강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또 영상 속 대사, 배경 음악, 효과음 등 다양한 사운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기능인 'AI 사운드 컨트롤 프로'도 탑재해 콘텐츠 몰입도를 높였다.

이런 다양한 AI 기능을 탑재한 삼성전자 2026년형 마이크로 RGB TV와 OLED TV가 영국과 미국의 주요 IT 매체들로부터 연이은 호평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TV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올림픽 특수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1분기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갤럭시 워치, 건강관리 기능 대폭 강화

삼성전자 디지털 헬스시장 공략 속도

삼성전자가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워치 신제품에 인공지능(AI) 기반 건강관리 기능을 대거 탑재하며 디지털 헬스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 상태 변화를 감지하고 맞춤형 건강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개인 건강관리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8일부터 삼성 헬스 앱을 개편하고 ▲수면 ▲활동 ▲식이 ▲마음 건강 ▲생체 징후 등을 중심으로 신규 기능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신규 기능은 ▲생체 징후 ▲심장 건강 점수 ▲일일 유산소 부하 ▲신체 체력 지수 ▲청력 등이다.

먼저 '생체 징후' 기능은 삼성 헬스 사용자가 꾸준히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걱정되는 신체의 변화나 문제가 감지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갤럭시 워치 사용자가 일주일 이상 위치를 착용하고 수면을 취하면 수면 중 다

섯 가지 주요 생체 지표인 ▲심박수 ▲심박변이도 ▲호흡률 ▲피부 온도 ▲혈중 산소 포화도 등을 추적하고 개인의 기준 값을 설정해 이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수치 변화가 있을 때 갤럭시 워치를 통해 알림을 제공한다.

또 삼성 헬스는 '심장 건강 점수'를 제공해 일상 습관이 장기적인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수면, 활동량, 체성분 및 혈관 스트레스의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심장 건강 점수를 보여주고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최근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팁을 전달해 긍정적인 건강 관리 습관 형성을 독려한다.

이 외에도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 시 탈진이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에 얼마나 운동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일일 유산소 부하' 수준을 제공한다. 일상적인 활동과 운동을 하는 동안 심장에 가해진 부하를 계산해 운동과 회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차현정 기자

중고차시장 고유가 파장... 전기차 시세 ↑

케이카 전기차 중심 시장 회복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기차가 가격이 반등하며 시장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4월 케이카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0년 이내 740여종 모델을 대상으로 최근 시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달 국내차 시세는 0.9%, 수입차 시세는 1.3% 전월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전달 하락 폭(국산차 1.8%, 수입차 2.8%)과 비교하면 이달 중고차 시세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기차다. 전기차 평균 시세는 지난 5월 -0.7%에서 6월

0.2%로 상승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상승 모델로는 ▲BYD 아토3 6.2% ▲현대차 더 뉴 봉고III EV 카고 3.7%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3.7% ▲기아 EV 6 3.3%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카이드 3.0% 등이 꼽힌다.

국산차 전반에서도 시세 하락 폭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월 급락했던 시세가 이달 들어서는 ▲현대차 그랜저 IG(-0.8%) ▲현대차 아반떼 CN7(-0.6%) ▲현대차 쏘나타 DN8(-0.4%) 등 주요 차종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보인다는 관측이다.

다만 지난해 가격이 높았던 대형 SUV와 RV 차량들은 중동전쟁에 따른 수출 수요 감소로 시세 하락 지속이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ysw@

SK온, 차세대 ESS '그리드온 Gen2' 공개

美 '클린파워 2026' 스폰서사 참여

SK온이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리드온 Gen2'를 공개하며 북미 ESS 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4월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1일부터 4일까지(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클린파워 2026에 스폰서사로 참여하고 전 시장 인근에서 고객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현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ESS 사업 전략과 제품 경쟁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글로벌 및 미국 주요 민간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사, 유틸리티 기업, ESS 시스템 통합(SI) 기업, ESS 솔루션 기업, 재무적 투자자 등 약 50개 기업에서 150여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행사에서 SK온은 주요 고객사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현지 사업 확대 기반을 다졌다.

SK온은 행사에서 ESS 브랜드 '그리드온'과 차세대 제품인 '그리드온 Gen2'를 공개했다. 그리드온 Gen2는 미국 시장 수요를 반영해 개발 중인 차세대 ESS 제품으로 2027년 3분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품은 ESS 시장이 기존 직류(DC) 블록 중심에서 전력변환장치(PCS) 통합형 교류(AC) 블록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DC와 AC 블록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용량 전력망과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DC 블록 컨테이너당 에너지 용량도 평균 15% 높였다.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배터리 상태 추정 시스템과 냉각수 소화 시스템 등 안전 기술도 적용했다. 여기에 공급망 추적 체계를 구축하고 역내 생산 기반을 활용해 고객들이 2030년까지 최대 40%의 투자세액공제(ITC) 혜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